

■ 2017년도 국제교류사업 3차 공모 사업별 심의 총평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사업 3차

- 사업유형/심의분과 : 2017년도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사업 3차/ 문학분야
- 회의일시 : 2017. 9. 18(월) 10:30 - 12:00
- 회의장소 : 예술가의집 세미나실 1
- 심의위원(가나다순) : 손동연, 이승하, 정희성, 조정란, 홍기돈

2017년 해외레지던스참가지원(기획형)사업 3차 공모사업은 "인도 인코센터 협력 상암하우스 레지던시" 참가지원사업으로 총 7건의 신청이 있었다.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경우가 없었으므로 7건 모두 심의하였다. 심사에 앞서 심의위원들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안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가를 적극 평가한다. 이는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계획안 작성의 성실성에도 연관되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 진행일이 촉박한 만큼 준비 기간이 충분치 못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결과이다.

둘째, 향후 파급효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는가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이는 한국 문학의 특수성과 세계문학의 보편성 사이에서 그 긴장을 견디며 나름의 방향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사례에 주목하자는 의도에서 마련되었다.

셋째, 비슷한 평가가 나왔을 때 그동안 지원받은 바 없는 지원자를 배려한다. 이는 형평성에 관한 측면에서 마련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살펴보니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야 할 사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평가한 결과 이지홍 작가를 선정하게 되었다. 심사기준의 두 번째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데 따른 결과이다. 그동안의 이력이라든가 꾸준한 활동도 심의 위원들에게 신뢰를 심어줬다. 황해도와 고향을 이수하고, 연극심리상담 등을 공부하는 등의 이력이 <인도 신화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오페라> 계획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도 상암하우스 레지던시 참가 이후의 이지홍 작가의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한다.

문학분야 심의위원 일동